

마포시설공단, 퇴직예정 직원 대상 재취업 지원 시범사업 성료

‘고령자고용법’ 제도 도입 대비...만 58세 이상 대상 맞춤형 진로설계 및 취업알선

2026-08-10 오후 4:30:17

마포타임즈 ✉ mapodesk@hanmail.net



7월 24일 퇴직예정 직원 대상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 프로그램」

진로설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황진택)은 최근 만 58세 이상 퇴직예정 직원 4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도입을 앞두고, 공단 내부 실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운영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지난 7월 24일 공단 2층 대회의실에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자기이해와 경력목표 설계를 중심으로 한 진로설계 교육이 이뤄졌으며, 교육 수료 후에는 개별 맞춤형 취업알선 상담이 이어졌다. 특히 전문 컨설팅 수행 기관인 에이케이지(AKG)와 협력해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검증했다. 참여자들은 구직 정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단계를 가장 유익한 과정으로 꼽았다.

공단은 수료생들이 제안한 고용보험 제도, 이력서 작성 법, 중장년층 대상 교육 확대 등의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교육 콘텐츠와 운영체계를 정밀하게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진택 이사장 직무대행은 “퇴직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마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6-08-10 16:30 송고

<http://www.mapotimes.co.kr/news.aspx/402913>